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조각에서 신체를 통한
감정표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홍 근 영

현대조각에서 신체를 통한
감정표출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장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홍 근 영

인 준 서

홍근영의 석사학위 논문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신체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완전성을 구현해야 할 대상으로서, 관능적인 과시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공포, 불안, 도덕적 혼란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그 면모를 다양하게 바뀌가며 역사에 등장해 왔다. 현대의 신체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환경적 신체로 본인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억압된 감정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배제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 내면의 무의식 영역에서 존재하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을 건드리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억압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될 때 보이는 폭력성은 폭발적인 힘으로 발생되어 비사회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다시 억압되고 통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외부로 분출시키는 행위는 인간 내부에 억눌린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금기가 깨졌을 때 동반되는 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본인의 개인전 작품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무의식에 잠재되어있는 억압된 감정인 ‘분노’의 감정 표출을 신체변형을 통해 시각화 한 작품들의 이론적 내용 및 표현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본인작품의 과정에 관한 연구인 본 논문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의 범주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억압된 감정표출이 예술로서 이론적 배경이 된 개념을 정리하고 시대가 변화됨에 따른 ‘몸’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서술하였다. 또한 본

인의 작품을 이론화 시킬 수 있는 그로테스크와 키덜트의 이론적 배경에 접근하였다. 작품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신체를 통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형태 변형 방법과 다양한 색감과 기법을 통한 표현방법 및 작품 분석을 서술 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와 작품의 나아갈 방향을 서술하였다.

본인은 감정의 표출을 통한 신체성의 모색과 다양한 색감과 기법을 통해 작품에 대해 더욱 깊이 통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인의 작품의 진행 방향을 제시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억압된 감정표출로서의 예술	3
2) ‘몸’의 이미지 : 그로테스크(Grotesque)	5
4) 아동적 감수성 : 키덜트(Kidult)	9
2. 작품 표현 방법	11
1)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	11
① 비정상성	11
② 과장	12
③ 부조화	13
④ 단순표현	14
⑤ 절단 및 파손	15
⑥ 돌연변이	15
2) 다양한 색과 즈그라피토 기법의 표현	16
3. 작품 분석	20
III. 결 론	3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작 품 목 차

- 【작품1】 뿔파워(The Horn power), 합성수지, 모터, 뿔, 크레파스, 아크릴 물감, 투명락카 마감, 스텐레스스틸, 85x31x101cm, 2011 20
- 【작품2】 뿔을 보호합시다 (Let's protect Horns), 합성수지, 크레파스, 아크릴 물감, 투명락카 마감,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1 22
- 【작품3】 뿔이 부르는 노래 (Song Horns Sing), 합성수지, 싸이키, 크레파스, 투명락카 마감, 60x70x76cm, 2011 26
- 【작품4】 뿔 좀 꺼주세요 1 (Soothe your Anger1) 합성수지, 경보등,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페인트 펜, 투명우레탄 마감, 90x70x175cm, 2011 28
- 【작품5】 뿔 좀 꺼주세요 2 (Soothe your Anger2) 합성수지, 안개발생기,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투명우레탄 마감, 150x70x173cm, 2011 31
- 【작품6】 손가락질 (Finger - pointing) 합성수지, 크레파스, 투명우레탄 마감 20x35x30cm, 2011 33
- 【작품7】 왜? (WHY?_) drawing series , 종이 위에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펜, 21x28.5cm, 2011 35

I. 서론

예술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리며 세계를 인식해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때 인식의 목표는 대상을 묘사하는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예술창조자의 주관성에 있다. 예술행위에 있어서 주관성이 중요한 것이라면 본인의 주관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야 한다. 예술은 미적인 체험 외에 정서적, 정신적인 발상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삶과 예술은 상호불과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인의 주관성은 억압된 감정표출의 사고 작용으로 발현되었으며 이는 곧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되었다.

분노라는 감정이 억압되고 응축되어 한꺼번에 폭발했을 때 그 안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표정과 행동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겉으로 보여 지는 행위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적인 것을 얼굴과, 신체의 형태, 다양한 색들로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체는 가장 본능적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며 본인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으로 개성을 나타내려고 한다. 따라서 내면적 세계에 내포되어 있는 원초적인 분노 감정의 다양성을 시각화함으로서 신체와 얼굴 표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예술은 작가의 정신적 산물로서 작가의 삶과 주변세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이 구체화되어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내적필연성'의 원칙을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창조자로서 모든 예술가는 자기의 고유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며¹⁾ 이는 감정체험을 통한 내적인 충동과 욕구를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것은 예술적 행위의 원인으로 본인의 삶에서 느낀 내적 감정이 작품에 표현되어 표출되고 감상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 이론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연구과정을 밝혀 본인의 작품을 정립하고자 한다.

1) W. Kandinski,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p.68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억압된 감정표출로서의 예술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생되며 반응하는 것이 감정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접촉하는 일상적인 세계이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제한된 감정 표현만을 하게 되고, 아울러 사회적 집단속의 공통된 사회의식이나 제도로 인해 각 개인마다 수많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면의 모습을 적당히 표현하거나 감추게 된다. 이러한 내면적 감정과 현실적 감정 간의 마찰은 본인 작품 속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의 표출은 본인의 작업에서 ‘분노’라는 감정으로 대변 된다.

분노(Anger)는 경미한 수준의 성가심이나 짜증에서부터 격노나 격분 같은 강한 흥분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들로 구성된 정서이다.

분노가 발생하는 상황은 특정 순간에 경험하는 감정으로 좌절, 모욕, 부당성, 불의, 공격받는 것 등의 다양한 경험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분노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다. 분노는 강도와 지속성, 빈도가 증가하거나 표현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일 때,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다가오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고 의사소통 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분노를 표현하는 측면으로는 분노통제(anger-control),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로 세분화 된다.²⁾

먼저 분노 통제는 화가 난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책략들을 구사하며 냉정을 유지하고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며, 분노억제는 분노경험에서 유발되는 화난 감정이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에 담아두는 것으로, 불안 및 우울, 대인관계에서의 과민성과 같은 다양한 내면화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표출은 화난 감정을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인 반응으로 외현화 하는 것인데 화난표정을 짓거나, 욕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병리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분노의 감정에서 중심적인 것은 한 개인이 어떠한 사건에 연관되었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낄 것인지, 또 그 감정을 얼마나 잘 대처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놓이게 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을 때만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잠시 억눌려 있는 감정도 포함되며 이러한 감정 자체가 어떠한 계기를 만나게 되어 수면위에 폭발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억압된 감정의 표출인 것이다.

칼 융(K,Jung)³⁾은 “예술은 상징이다. 작가가 경험한 것, 지각하는 것, 느끼는

2)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한국학술정보, 2005, P.24

3)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웠고 외향성·내향성 성격, 원형, 집단무의식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발전시켰다. 그의 업적은 정신의학과 종교·문학 관련 분야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것, 생각한 것을 상징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⁴⁾ 라고 말한다. 즉, 본인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 상징화 과정을 통해서 작품 속 표현 내용으로 부여된 것이다. 본인은 자연스레 겪는 일상의 삶 속에서 본인이 경험한 감정과 잠재되어 있는 억압된 감정의 표출에 근거를 두고 신체라는 소재를 감정의 도구로 선택하였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억압된 감정은 신체와 연관되어 감각을 통해 느껴지게 되며 이는 다양한 분노감정의 모습과 내적충동을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2) ‘몸’의 이미지 : 그로테스크(Grotesque)

‘몸’은 ‘인체’나 ‘신체’를 의미하는 비전문적인 일상어이지만 근래에 들어서 사회적 육체, 정신적 육체라는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사회학적, 혹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육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⁵⁾

미술에서의 몸은 언제나 중심테마가 되어 왔지만 몸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견해는 몸에 대한 미술 이론에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였다.⁶⁾

20세기 대표적인 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메를로퐁티(Merleau-Ponty)⁷⁾는 모

4) Aniela Jaffe,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79, p.102

5) 셸링,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나남출판, 1999, p.34

6) 한림미술관·이대기호학연구소주음, 「몸과 미술-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7

7) 메를로 퐁티(Merleau-Ponty. Maurice, 1908~1961) 라 로세르 근처 로쉬포르 쉬르 메르 출생. 에콜 노르 말 쉬체리외르(사범대학)를 졸업. 여기에서 J.P.사르트르를 알게 되었다. 1945년 리옹, 1949년 소르본 대학을 거쳐 1952년에 콜레주 드 프랑스의 철학교수가 되었다. E.후설의 후기사상의 영향을 받아 생활 세계의 현상학적 기술을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기도한 주저 [지각의 현상학](1945)에 의하여, 사르트르, S.s.d 보부아르 등과 더불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적 이론가가 되었고, 실존주의적 양의성(兩義性)

든 인식의 궁극적인 완성은 몸의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여러 갈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 정보다는 몸을 중시하는 이론을 정립한다. 또한 “나는 신체를 통해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 라고 말하며 몸은 세계 안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적극적인 매체인 동시에 몸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몸 철학의 중심 테마는 나와 타자 사이의 사회적 존재에서 드러나며 개인의 감정이 흐르는 통로이자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세상과 교류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몸이라는 곳은 외부의 환경정보를 받아들여 대처하기도 하고 오감을 통해 외부의 환경을 받아드리며 교류하게 하는 장소인 동시에 사회의 역할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본인의 몸은 외부와 내부가 소통하고 다시 내부가 외부와 소통하는 장소이다. 또한 유연하고 다의미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장으로서 기존의 미의 규칙에 저항하고 본인이 살아가는 시대의 억압된 감정의 모순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몸으로 표현된다.

몸은 이제 무한한 조작과 변화가 가능한 대상으로 변모하였고 산업적이며 기능적인 효용성을 위한 기계적 도구로 나타난다. 즉 조화로운 질서와 규칙을 열망으로 하는 사실적인 몸과는 상반되며 아름다운 것을 재현하거나 이상적인

의 입장이 철저히 해졌다. 그의 주저는 신체. 지각을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나와 남의 문제를 논하였고, 사르트르와 같이 대자(對自), 즉자(卽自)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양자를 불가분의 통일 속에 포착하려고 하는 양의성을 내세웠다. 처음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사르트르에 앞서 공산주의자에게 동정을 표하였다. 그러나 한층 더 용공적인 정치적 태도를 취하게 된 사르트르의 철학을 울트라볼셰비즘이라고 단정, 비판하며 비공산주의로 전화하고, [변증법의 모험](1955)에서는 사르트르를 신랄하게 비난하여 사상적 결별을 고하였다. 저서로는 [행동의 구조](1942) [휴머니즘과 테로르](1947) 등이 있다.

미를 추구하길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휴먼’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비판, 과학과 기술, 그리고 비인간적인 인간관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가 사라지고 정신과 물질, 이성과 감성의 이분법을 거부하면서 신체는 기이하게 변형, 절단, 확장, 과편화 되는가 하면, 욕망과 쾌락의 소비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신체변형은 새롭고 다른 ‘위반적인 형태’를 제시한다.⁹⁾

이러한 형태의 신체가 논의 되면서 예술은 신체에 대한 표현방식으로 그로테스크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그로테스크는 기괴하고 메스꺼우면서도 희극적이고 즐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것, ‘무섭게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양식 사이의 충돌’이 빚어내는 감흥이다. 즉, 그것은 대상과 지각주체의 반응 모두에 관계하는 바, 쾌와 불쾌, 웃음과 공포와 같은 양립 불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이 대립적으로 혼재해 이미지, 양식, 또는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특정 반응, 즉 호기심과 혐오감의 양극을 왕래하는 주체의 엇갈리는 감흥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질성, 양면성, 복수성의 공존과 충돌로부터 그로테스크 미학이 수립되며 과대, 과장, 과도, 과잉과 같이 정도가 지나친 초과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상의 상태를 벗어나는 과장과 극단은 그로테스크의 전형적 속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테스크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불편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¹⁰⁾

포스트모던의 그로테스크는 ‘사회주의적인 카니발 그로테스크(Cannibal

8) 위의 책, p.10

9) 김홍희,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재원, 1998, p.325

10) Philip Thomson, 「그로테스크 The Grotesque」, 김영무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1~4

grotesque)’와 ‘정신분석학적인 언캐니 그로테스크(Uncanny grotesque)’의 2가지 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2가지 그로테스크는 서로 강조점이 다르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양자가 대립되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들이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왜곡된 내적감정의 심리상태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신체로서 ‘심리범주’의 언캐니 그로테스크로 정의 될 수 있다.

프로이트¹¹⁾는 논문 <언캐니(Uncanny)>에서 공포에 관계되어 공포를 유발하는 ‘언캐니’한 특수한 느낌을 연구하였다. 아름다움을 연구범위로 하는 미학에서 숭고함과 기쁨, 감동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측면, 괴기함, 공포,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언캐니는 원래 친숙한 것이 억압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낮설고 두려운 대상으로 느껴진다. 프로이트의 핵심사상인 낮익은 이성과 명료한 의식의 아래 억압된 무의식이 있고 이 억압은 틈틈이 귀환한다는 이론이 언캐니에서 다시 언급되는 것이다.¹²⁾ 주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던 욕망이 그 귀환의 주인공이며 무의식에 잠재했던 인간 본능이 가진 충동이 언캐니의 중심에 위치한다. 즉 개인적, 내면적 환상을 향한 심리 범주로서 이상하고 범죄

11)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과의 창시자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억압의 방어 기제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대화를 통하여 정신 병리를 치료하는 정신분석학적 임상 치료 방식을 창안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또 그는 성욕을 인간 생활에서 주요한 동기 부여의 에너지로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자유 연상, 치료 관계에서 감정 전이의 이론, 그리고 꿈을 통해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하는 등 치료 기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뇌성마비를 연구한 초기 신경병 학자이기도 하였다. 신프로이트주의에서 프로이트의 많은 이론을 버리거나 수정하였으며, 20세기 말에 심리학 분야가 발전하면서 프로이트 이론에서 여러 결함이 드러났으나, 프로이트의 방법과 관념은 임상 정신 역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인문 과학과 일부 사회 과학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12) 권영택, 「해결이 또하나의 문제인 세상」:인문학연구제1호, 경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p.94

적인 특수 경험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¹³⁾

본인의 작품에서 절단된 몸과 움직이기까지 하는 신체의 탈피화는 인간의 억압된 감정을 은유하는 동시에 언캐니한 공포심리를 자아낸다. 프로이트는 생기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것인지, 또는 그 반대로 생명 없는 대상이 정말로 활력 없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언캐니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인간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인형과 같은 본인의 작품이 바로 그런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성별의 구분이 없는 작품은 남과 여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신체에 부과된 사회적 규정을 제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양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거의 남과 여의 성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인의 신체미술은 그로테스크 신체를 포괄하는 포스트젠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비천함, 과편화된 신체등을 본인의 저항적 신체미술로 끌어들이고 있다.¹⁴⁾

3) 아동적 감수성 : 키덜트(Kidult)

키덜트는 키드(Kid)와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20~40대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국립국어원에 신조어(新造語)로 등록 됐으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의 감성을 간직하고 추구하는 성인들’을 일컫는 말이다.¹⁵⁾

아동들은 꾸밈없이 순수한 내면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세계로 표출한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며 어떠한

13) Russo, 「The Female Grotesque」, Routledge, 1995, p.7-8

14) 이은정, 「신체미술의 전경」, 미술과 담론 제 8호, 2000, p.87

15) 위키 백과사전

의도도 없다. 본인은 이러한 아동적 감수성을 통해 본인의 내적 심리 상태에 억압된 감정을 조각과 드로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화적 표현은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본인과의 소통방법으로 무의식의 감정 내면 속 이야기에 충실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감정에 솔직한 모습과 작품의 행동에서 나타나며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나 이미지를 구현해냄으로써 보는 이에게 신기함과 웃음을 느끼게 하는 해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내재된 감정이 분노라도, 곁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왜곡되더라도 쾌락을 위한 해학의 기반이 작품에 내재되어 그로테스크함을 걸러준다. 즉 해학이라는 코드는 그로테스크가 가진 의미만을 집중시키지 않고 그것들이 작품에 숨어있게 하여 더욱 과장되고 모순된 모습으로 작용하게 한다.

작품을 보는 관람자들은 그로테스크한 신체를 통해 억압된 감정의 성질을 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우스꽝스럽고 유쾌함이 공존하는 일종의 해소감이 동반된 쾌감까지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비일상적 해프닝으로 나타난 낯설고 낯익은 형태와 아동기적 성향의 자유로운 표현과 색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2. 작품 표현 방법

1) 신체를 통한 감정 표출

① 비정상성

비정상적인 것은 새로운 형태의 모습과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부터 느끼는 재미가 있다. 일단 비정상의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친숙하지 못한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로 바뀐다. 본인의 모든 작품에서는 공포까지 조성되지는 않지만 공인된 기준과 규범에서 벗어난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희극적인 요소들이 담긴 여러 모순들의 편성된 충돌이자 양면성을 지닌 비정상성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의미로는 기형화된 신체도 비정상에 속하며 신체구조가 비합리적, 비체계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신체의 비정상적인 변형은 주로 신체의 특정부분 생략, 기계적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특정 형태의 위치나 방향의 전환, 부분과 부분의 모순된 결합, 혹은 인체의 속성을 변화시켜 형태나 용적을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곧 혼란과 무질서의 미학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현실과 상상, 의식과 정신의 해방을 추구한다.

【작품1】에서는 신체의 왼팔이 오른팔로, 오른팔이 왼팔에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팔의 위치를 전환 시켰고, 신체의 형태를 빌려 동물의 몸처럼 기자로 왜곡하여 기형화 하였다. 【작품2】 또한 신체의 정상적인 재현을 통해 표현하기 보다는 부분으로서의 신체이미지, 팔이 없는 몸체, 얼굴과 얼굴의 조합, 팔과 다리의 위치전환, 신체의 부분 생략 등의 것들이 모두 조합되어 재구조화된

신체를 형상하였다. <BMS-101>과 <HB-56>, <TF-m02>는 신체의 몇 가지 요소를 부재 시키고 팔의 위치를 변화시켜 기형화함으로써 감정의 해방을 추구한다. <FGG-004> 또한 팔의 위치가 전환되고 4개의 반복적인 얼굴의 형태를 통해 수많은 본인의 모습을 상징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신체는 해체되거나 유기적 구성을 잃은 기형적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형상은 본인이 감싸 안은 혹은 타인이 감싸 안은 감정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원형이 부재한 신체로 나타난다. 이 굴절된 신체들은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조화와 통일성의 미학 대신 부조화와 불일치의 미학을 내세우며, 결코 단일하고 일의적이지 않다. 또한 단절과 복합성, 불연속성과 조각화, 유동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인체이다.¹⁶⁾

② 과장

과장된 변형은 인체구조에 있어서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신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신체비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¹⁷⁾

본인의 작품에서 과장적 변형에 의한 신체는 동일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고유의 비례관계가 깨어짐으로 해서 특이한 표정이나 강조된 동작과 형태를 갖추게 된다. 과장은 신체의 형상을 과격적으로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하여 단순화와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

16) 한림미술관·이대기호학연구소유음, 「몸과 미술-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10

17) 임범재, 「인체비례론」, 홍익대학교 출판부, 1980, p.79

형방법의 하나이다. 【작품2】 중 <NRP-j2>와 <TJGR-888>은 기형화된 모습인 동시에 과장되게 튀어나온 눈이 라던가 몸통에 비례하여 커져버린 뾰족한 얼굴의 과장된 형태는 미묘하고 섬세한 과장적 표현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개성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작품4】에서는 보이는 얼굴의 형태는 보고 싶지 않은 모습과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한쪽 눈은 크게 한쪽 눈은 작게 하였고 얼굴에 비해 귀를 과장되어 작게 만들었는데 본인은 이러한 얼굴의 형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료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

③ 부조화

부조화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인 다른 것들의 융합 등을 말한다. 이러한 부조화는 작품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이 유발하는 반응 속에서 그리고 예술가의 창조적 기질과 심리적 구조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화는 본인 작품 속에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분출구로 표현되며 ‘뿔’¹⁸⁾으로써 재현된다.

뿔을 지닌 동물들에게서 뿔은 가장 소중한 신체의 일부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서, 자신의 세력형성과 유지, 다른 무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뿔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로 나타나지만 남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뿔의 내재된 상징적 의미와 기능에 외형적인 이미지를 기계적 오브제와 감정의 싹으로 덧붙여 표현함으로써

18) 동물들의 머리에 솟은 단단하고 뾰족한 구조 또는 물건의 머리 부분이나 표면에서 불쑥 나온 부분을 뿔이라 지칭한다.

다른 의미의 빨이 생성되기도 한다. 그것은 빨이 자란 이유에서 시작되는데 생물학적으로 자라나는 빨이 아닌 내적 감정으로부터 생성된 빨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주목하는 감정은 “분노”이며 일상어인 “화난다”의 또 다른 표현인 “빨났다”¹⁹⁾에 주목하여 무의식적으로 몸통에서 불쑥 솟아나는 이질적인 짝으로 특정한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빨의 형태는 모두 이질적인 빨의 모습으로 표현 되어 기계적 오브제를 사용하거나 인체의 어떤 한 부분이 빨처럼 변형되어 촉수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작품1】에서는 인체의 한 부분인 머리카락이 빨처럼 자라나고 있고 꼬리로 보이는 이미지 역시 감정을 분출하는 형태로 적용된다. 【작품2】의 여러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체의 한 부분이 빨처럼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 형상화되었다. 이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존재로서 분노의 행동을 풍자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빨을 보호 합시다.> 라는 제목에서의 빨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빨로서 화난상태의 빨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다가오며 그 빨은 다시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분노의 순환을 말한다. 또한 깨끗하고 뽀족한 빨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인간들의 감정의 전쟁으로 표현된다.

기계적 오브제를 사용한 【작품3】, 【작품4】, 【작품 5】 역시 노래방 싸이키, 경보등, 안개발생기가 사용 되었는데 이것도 화를 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순환구조를 기계적 오브제를 통해 대변 한다.

【작품7】에서 드로잉은 모두 보이는/보이지 않는 빨이 존재한다. 이는 억제

19) [관용구] 화가 난 것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되거나 통제되는 분노와 표출 되는 분노의 여러 가지 성향을 보여준다.

본인의 작품에서의 빨은 어떤 감정의 결정체로 빨의 형태는 예측 할 수 없는 모습과 다양한 모습으로 변이되어 감정의 분출구로 나타난다.

④ 단순 표현

단순화된 신체는 신체의 사실적인 구조적 형태에서보다 더 완벽하고 완결된 이미지를 발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단순화 시킴으로서 신체의 본질적 특성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메시지 전달의 효율화를 기할 수도 있다. 본인 작품에 있어서의 단순화는 【작품3】 , 【작품4】 , 【작품 5】 의 몸체부분을 단순화 시키고 그 위에 회화적 표현을 함으로써 본인의 의도를 보다 쉽게 집약시켜준다. 단순화된 인체는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며 유머러스하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유발하고 있다.

⑤ 절단 및 파손

절단, 파손 및 훼손에 의한 신체변형방법은 기형적 변형방법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본인에게 신체는 감정적 차원에서 물질적, 도구적인 대상으로 사용 되었는데 【작품1】 과 같이 다리의 절단과 목의 절단을 통해 내부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폭력성을 표현하였다.

⑥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세포 유전물질의 변화되어 생기는 변종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자연발생적²⁰⁾으로, 또는 전자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작품6】에서는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신체의 한 부분인 손가락의 조화로만 이루어진 감정의 돌연변이이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에서 생성 되었으며 분열되고 재조합 되어 만들어진 형상은 무엇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형태는 기존의 형상과 의미를 벗어난 새로운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색과 즈그라피토 기법의 표현

본인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색감과 즈그라피토²¹⁾ 기법을 통해 분노의 감정

20) 유전물질의 복제과정에서 우연히 생김

21) 즈그라피토 (ZGRAFFITO)

“즈그라피토”라는 단어는 “�ูด”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 어로서 이 기법은 석회 반죽을 이용한 작품이나 도자기의 제작에 많이 응용된다. 물감을 섞은 석회 반죽을 바른 뒤 그 표면을 긁어내면 바탕칠의 색상이 드러나게 된다. 최근에는 뒤뷔페(Jean Dubuffet, 1901-85)등의 화가들이 이러한 즈그라피토 기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소묘의 제작에서는, 덧칠한 표면을 날카로운 도구 (붓자루의 끝, 칼, 철침 등)로 긁어내어 종이의 흰색을 살려내는 방법이 이용된다.

특히 즈그라피토 기법은 파스텔이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먼저 파스텔을 종이에 칠한 뒤 종이 막대로 문질러서 뚜렷하고 고른 색상으로 처리한 다음 픽사티브를 뿌리고 어두운 색을 덧칠한다. 두번째로 칠한 파스텔은 문지르지 않아도 되며 이런 준비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묘사하고 싶은 이미지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면 된다. 번거롭게 바탕색을 칠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색지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수채 물감이나 잉크를 칠해두고 유성 파스텔을 덧칠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칼을 이용한 즈그라피토 기법 순서

1. 노란색 파스텔을 문질러서 바탕색을 마련한다. 종이위에 남은 불필요한 파스텔 가루를 불어내고 픽사티브를 뿌린다.
2. 픽사티브가 완전히 마른 다음, 검정색 파스텔을 노란색 바탕위에 완전하게 덧칠한다. 이 때는 초벌칠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하게 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시 픽사티브를 뿌린다.
3. 칼이나 철필을 이용하여 검정색으로 덧칠한 표면을 긁어내면 밝은 노란색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가지 색상을 바탕칠로 이용할 경우에는 몇가지의 색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안 심프슨, 「드로잉기법」, 최기득 역, 예경, 1994, p.53

을 느낄 수 있다. 아주 강한 감정 표현을 위해 인물이나 사물에 정상적인 형태보다는 뒤틀린 형태와 함께 과장되고 대비되는 색감들과 굵혀진 선을 통해 내부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조형예술에서 색채는 작품에 생명력과 의미를 전달해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색채는 대상을 재현하고 사물을 구별하는 구실 뿐 아니라 색을 통해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직, 간접적인 매체로 본인의 사고를 반영한다. 따라서 작품에서의 색채들은 정신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작품의 의도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과 심리적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 색, 선 등을 마음의 상태로 느껴지도록 내면적인 모든 것을 담아내는 회화적 요소로 사용하여, 재현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표현성으로 분노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색채는 유아기적 성향의 키덜트적 감성이 드러나 있다. 그로테스크한 신체에 채색된 색들은 기존에 형태에서 인식된 폭력적인 감정의 분출이 다른 느낌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2】의 NRP-j2에서 나타난 핑크색은 아동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색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색이다. 또한, 핑크색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기분을 진정시켜 주기도 하며 폭력적인 성향이 약화되는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²²⁾

TF-m02에서 나타난 녹색은 자연의 색이자 생명의 색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긴장을 완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²³⁾

22) 모던 워커, 「The Power of Colo」, 김은경 역, 교보문고, 1995, p.23

23) 김진한, 「색채의 심리」, 시공사, 2002, p.56

또한 본인의 작품에서 선은 크레파스를 이용한 즈그라피토의 기법으로 나타나는데 왜곡된 형태와 함께 명암대비와 색상대비를 이용한 인공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채색기법을 통해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어 자연스런 느낌이 들지만 또 한편 굵어낸 많은 선들은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과 중첩은 윤곽선이나 형태들이 서로 겹치거나 가로지르면서 선이 차단되고 색의 겹침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내포하여서 굵힌 자국은 본인의 반복적 행동을 통해 분노의 심리상태로 나타난다.

【작품4】에서는 몸통에 강렬한 원색들이 서로 긴장되고 충돌 되어 있어 강한 색의 대비와 함께 분노의 심리를 전하고 있으며 얼굴에 나타난 거친 붓의 터치로 처리된 회색빛 색상과 머리에 굵혀진 히스테릭한 도상은 폭력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작품5】에서는 거친 터치로 처리된 바다의 푸른색과 보색을 이루는 노랑과 주황의 머리는 색채의 대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본능적이며 강렬한 시각적 언어로ダイナ믹하게 색을 병치시켜 역동감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몸통과 머리통의 부조화 색은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때로는 시지각을 자극하기도 한다. 24)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바다를 표현하고 있는 파란색과 머리의 열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대비를 이룬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주황색은 마치 열이 내부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때 머리의 꼭대기는 다홍색으로 활동적인 에너지가 최고조로 극대화 시킨다. 몸체와 얼굴의 색채는 부조화색이지만 본인의 작품 속에서는 이러한 부조화가 강한 원시적 느낌으로 다가와 작품에 생명

24) 라우어, 데이비드.A,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미진사, 2002, p254

감을 붙여 넣어 주고 있다. 이러한 색채는 보색대비에 의해 서로 강화되고 있는데, 색채는 붓질과 크레파스의 거친 표면을 강조하여 내면의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이 색의 표현은 내면적인 세계를 타인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본인은 강렬한 색채가 선호되고 이것들은 인간의 감정인 분노를 상징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작품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인간의 외면과 내면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표현수단 되었다. 또한 선의 표현성은 본인의 상상을 통해 감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고 작품에 본인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생각과 감정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3. 작품 분석



【작품1】 뿔 파워(The Horn power)

제 목 : 뿔 파워(The Horn power)

재 료 : 합성수지, 레진, 모터, 빵끈,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스텐레스 스틸

크 기 : 85x31x101cm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마네킹을 절단 한 후 목 부분에 모터를 장착한다. 다시 합성수지로 절단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부착시키고 레진으로 기본 마네킹의 이미지를 변형시킨다. 사포질을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컬러링을 한다. 머리카락 부분은 원하는 크레파스로 색칠한 후 다시 다른 색의 크레파스로 뒤덮고 볼펜으로 긁어낸다. 컬러링이 완성되면 투명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한 후 엉덩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 빵끈을 엮어 꼬리를 만들어 준다. 분리되어있던 머리에 모터침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낸 후 모터가 달린 몸과 합체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스텐레스 스틸 좌대에 설치하고 전기선을 연결한다.

작품내용 : 목에 모터를 설치하여 얼굴이 반복적으로 360도 회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해소하는 동시에 또 다른 분노의 감정이 생성되는 감정의 순환을 표현한 것이다. 다리를 절단하여 분리해 설치한 이유는 인간의 고독과 공허함을 대변해 주는 이유와 사지가 절단되듯이 내적갈등 고통의 아픔을 형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형적인 몸의 형태와는 다르게 작품의 얼굴은 웃는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들의 현실적 비애를 담고 있다.



【작품2】 빨을 보호합시다 (Let' s protect Horns)

소재목 <BMS-101> , <HB-56> , <TF-m02>

<NRP-j2>, <FGG-004>, <TJGR-888>

제 목 : 뿔을 보호 합시다 (Let's protect Horns)

재 료 : 합성수지,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투명락카 마감, 혼합재료

크 기 : 가변크기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흙으로 만든 후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합성수지로 석고 내부를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아크릴 물감으로 컬러링을 하거나 페인트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또 크레파스로 색칠 후 다시 다른 색의 크레파스로 뒤덮은 다음 볼펜으로 긁어낸다. 작품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락카 스프레이로 마감한다.

작품내용 : 작품 제목에서와 같이 뿔은 보호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나타나며 뿔은 분노라는 감정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는 본인의 감정을 숨겨야만 한다. 즉 분노를 보호해야만 하는 현대인들의 복잡한 속내를 표현한 것이다.

모든 시리즈에는 조금한 뿔들을 주변에 밀집하여 같이 설치하였는데 관람자들은 뾰족하게 나온 뿔을 보호하려는 모습으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BMS-101>은 머리와 몸이 합체된 형태에 팔과 다리가 나오며 팔의 위치를 뿔처럼 위로 향하게 제작함으로 뿔과 손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것은 보호라는 이름아래 숨기고 억압되어왔던 감정과 더불어 더욱 파괴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HB-56>도 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머리와 몸이 합체된 형태이며 팔은 없

고 다리만 제작 되었다. 몸통의 녹색과 노란색, 다리의 붉은색의 대비는 내면의 분노가 충돌되는 에너지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TF-m02>는 붙어있는 두 얼굴이 서로 대조되게 만들고 전체가 녹색과 노란색으로 퍼지게 굵어 표현하였다. 눈썹을 기점으로 위의 얼굴은 웃음이 있고 아래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다. 이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에서 감정의 방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NRP-j2>는 몸통에 팔과 다리의 위치를 반대로 붙인 후 부자연스러움을 연출했고 색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신체의 변형을 잘 알 수 없게 하였다. 이것은 속내를 알 수 없는 모습의 인간을 캐릭터화한 모습이다. 이 작품에서는 눈과 빨을 같이 제작하였는데 신체 중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눈과 비교될 수 있는 민감한 촉수로 나타난 것이다.

<FGG-004>는 한 몸체에 4개의 얼굴이 있도록 제작하였는데 개체내부에 분열되어 있던 본인의 모습이다. 모든 얼굴에는 눈을 대신해 큐빅을 붙여 놓았으며 이는 인간의 시선이 아닌 숨겨져 있는 마음의 암호를 풀어야 한다는 기계적인 눈을 표현한 것이다. 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의 위치를 전환하였다.

<TJGR-888>에서는 몸체에 비해 과장되게 머리를 크게 하였고 얼굴의 표정은 슬프고 우울하게 제작하였다. 위의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를 반대위치에 붙이고 여러 방향으로 뻗게 함으로써 형태적으로 가벼운 몸체가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억압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의 우울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6개의 작품에서는 일상의 신체모습에서 벗어나 몸의 위치를 전환, 변형 시키

고 특이한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표출하는 모습이 다르듯이 다양한 감정의 갈등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각 시리즈 마다 적용된 작품의 소재물은 인간이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같은 것이며 어떠한 단어의 약자만을 사용하여 각자의 감정을 보호 하고 있다.



【작품3】 뿔이 부르는 노래 (Song Horns Sing)

제 목: 뿔이 부르는 노래 (Song Horns Sing)

재 료: 합성수지, 싸이키, 크레파스, 투명락카 마감

크 기: 60x70x7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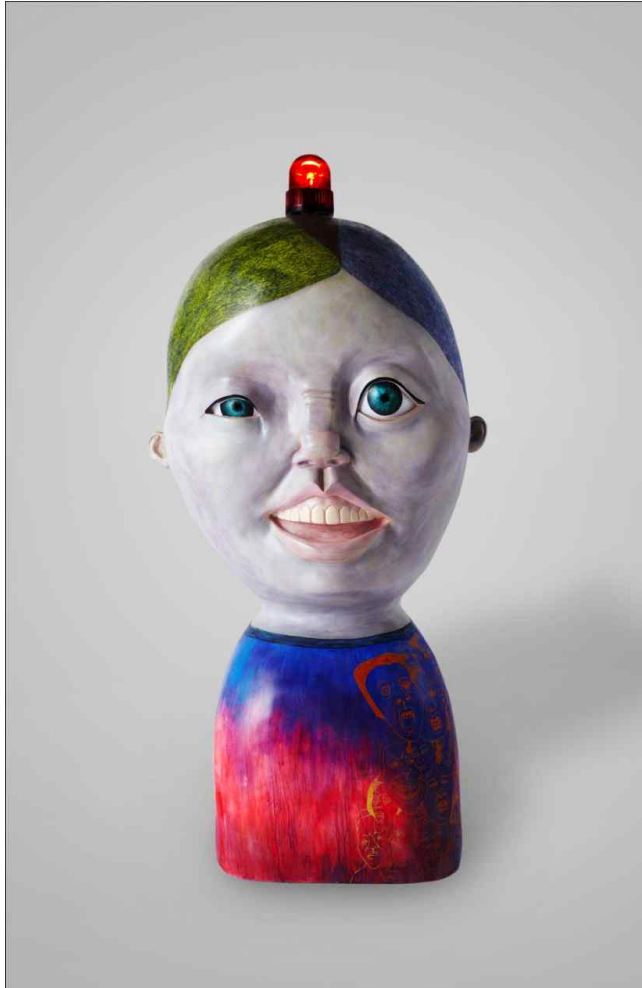
제작년도: 2011

제작방법 : 흙으로 만든 후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합성수지로 석고 내부를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안에 전선을 연결하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싸이키를 원형과 연결하고 크레파스로 색칠 후 다시 다른색의 크레파스로 뒤덮은 다음 볼펜으로 긁어낸다. 작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한다.

작품내용 : 싸이키는 회전과 동시에 빛을 만들어 주는 노래방용 조명기계로 머리를 대신하여 설치하였는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혹은 신나게 놀면서 분노의 감정을 소멸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감정 안에서 느끼는 분노를 화려하게 나타내고자 했다.

싸이키가 달려있는 몸체는 신체가 시도 할 수 없는 비틀린 형태로 제작 하였으며 내적갈등이 신체형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비틀린 몸에는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 표정들을 새겨 놓았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을 느끼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를 표출하는데 이러한 감정의 모습을 얼굴드로잉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4】 빨 좀 꺼주세요 1 (Soothe your Anger1)

제 목: 빨 줌 꺼주세요 1 (Soothe your Anger1)

재 료: 합성수지, 경보등,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투명우레탄 마감

크 기: 90x70x175cm

제작년도: 2011

제작방법 : 스티로폼으로 큰 형태를 깎은 후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합성수지로 석고 내부를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안에 전선을 연결하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하고 남은 머리 부분은 크레파스로 색칠 후 다시 다른 색의 크레파스로 뒤덮은 다음 불펜으로 긁어낸다. 몸통부분은 페인트 펜을 이용하여 드로잉 한다. 작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한 후 경보등을 머리 위에 설치한다.

작품설명 : 전체적인 형태는 단순하지만 얼굴의 이목구비는 기형화 되고 과장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진지한 모습이 아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머리 위에는 경보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작동하여 불이 들어오는데 이 기계 설치를 통해 관람자들은 작품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전달 받을 수 있다. 얼굴에서 보이는 감정의 모습과 경보등에서 느끼는 감정의 모습은 대립되는데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은유이며 일종의 위장장치로 표현된 것이다. 머리카락 부분은 가는 선들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표현들은 본인의 감정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이며 긁어내는 기법을 쓴 이 표현은 ‘분노’라는 감정과 더불어 히스테릭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단순화된 몸통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보색을 조화시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억압된 감정을 불이 나는 형상으로 나타내고자 했으며 그 안에 그려진 얼굴의 드로잉은 한 인물에 내재된 다양한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5】 빨 좀 꺼주세요 2 (Soothe your Anger2)

제 목: 뽀 줌 껴주세요 2 (Soothe your Anger2)

재 료: 합성수지, 안개발생기,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투명우레탄 마감

크 기: 150x70x173cm

제작연도: 2011

제작방법 : 스티로폼으로 큰 형태를 깎은 후 흙으로 만든 다음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합성수지로 석고 내부를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안에 전선을 연결하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아크릴로 컬러링을 하고 남은 머리 부분은 크레파스로 색칠 후 다시 다른색의 크레파스로 뒤덮은 다음 볼펜으로 긁어내어 드로잉 한다. 작품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우레탄 페인트로 마감한 후 머리 꼭대기 안에 안개발생기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한 후 물을 넣는다.

작품설명 ; 머리카락은 산(山)의 단순형태로 산의 정상부분을 지칭하는 머리 꼭대기에 안개 발생기가 설치하여 수증기가 나오도록 하였다. 이것은 화산이 지하에서 지표로 마그마를 분출하기 전, 마그마에 의해 나오는 수증기처럼 ‘뚜껑이 열린 상태’, 즉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를 나타낸다. 표면에는 가느다란 실선과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을 긁어서 새겨 넣었는데 한 개체 내부에서 무한 분열하는 성향을 표현 한 것이다. 얼굴은 눈의 형태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창백해 보이는 민트색을 얼굴의 색으로 선정하여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 상태의 응축된 고조의 긴장된 상황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몸통에는 파도치는 이미지를 그려 넣어 분노의 표출과 억압의 갈등을 표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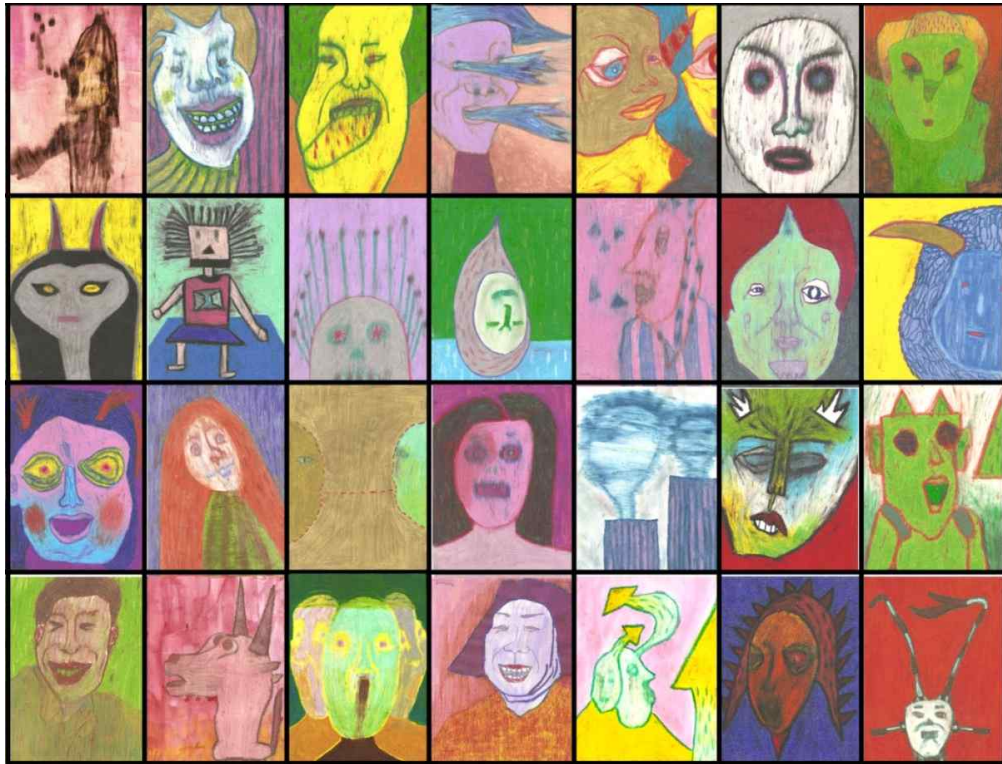


【작품6】 손가락질 (Finger - pointing)

제 목: 손가락질 (Finger - pointing)
재 료: 합성수지, 크레파스, 투명우레탄 마감
크 기: 20x35x30cm
제작연도: 2011

제작방법 : 흙으로 만든 후 석고로 외형을 떠낸다. 합성수지로 석고 내부를 다시 떠내 원형의 형태를 만들고 사포질을 한다. 사포질의 완성으로 원형이 매끈해지면 크레파스로 색칠한 후 다시 다른색의 크레파스로 뒤덮은 다음 볼펜으로 긁어낸다. 작품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 우레탄으로 마감한다.

작품내용 : 본 작품은 크기가 다른 손가락만으로 이루어진 괴물이다. 모두 손가락으로 표현 하였으며 크기만 다른 같은 동질의 것을 조합해 이음새가 자연스럽도록 했다. 손가락으로만 표현한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생된 감정을 통해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낮익은 신체의 조합으로 낯선 신체로서 다가오는 괴이한 느낌은 낯선 형태를 통해 돌연변이 괴물로 이미지화 시켜 본인의 고독과 공허함 그리고 감정의 분출구로, 또는 본인의 환상을 대변하는 대체물의 모습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품7】 왜? (WHY?_) drawing series

제 목: 왜? (WHY?_) drawing series
재 료: 종이 위에 크레파스, 아크릴물감, 펜, 연필
크 기: 21x28.5cm
제작년도: 2011

제작방법 : 종이위에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그린다.

작품내용 : 드로잉은 본인에게 있어 조각을 위한 사전단계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포즈와 표정이 있는 반인반수의 괴물이 그려져 있으며, 드로잉에는 보이는 / 보이지 않는 변형된 다양한 빨이 존재한다.

드로잉을 그릴 때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정에 의한 것이다.²⁵⁾ 본인의 드로잉에서는 즉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본인의 내면에 드리워진 분노를 그림으로 그리고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자 했다. 내면적 성격의 과정을 주로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대부분 갑작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즉흥(Improvisationen)이라 부르며 이러한 즉흥성은 낙서하듯 단시간에 자유로운 선과 색들로 완성되며 본인의 무의식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나 잠재된 내부 의식에 대한 욕구의 표출이며 자신을 찾아가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드로잉은 키덜트적 낙서 기법으로 복잡한 사회에서의 감정표현의 유아기적 감정의 솔직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25) W. Kandinski,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1979, p.141

Ⅲ. 결 론

신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신체가 하나의 영역이 아닌 대상이 되어 신체를 억압하고 도구화하고 기능화 한다. 억압된 감정은 신체의 감각기관과 연관되어 외부의 상황과 사건들에 대처하는 일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신체는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신체를 감정의 도구로 표현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신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된 감정을 찾고 있다. 사회의 합리적 규범에서 금기시되어 억눌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감정을 비정상적이고 과장된, 어울리지 않는 형태들의 결합, 단순한 몸체표현, 절단되어진 몸, 돌연변이적 몬스터 형태의 신체들로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신체 요소들은 그로테스크함을 추구하며 경계를 교란시켜 고정된 관념에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오게 한다.

억압된 감정의 표출은 쾌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금기에 대한 해방감에 목적을 둔다. 이는 점점 성인이 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솔직하고 즉흥적이었던 아동기적 감수성을 통해 억압된 감정의 폭력적인 표출을 가장 본능적이고 순수한 쾌락으로 느끼게 하며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비일상적 경험으로 둔갑 시킨다. 이러한 키덜트적인 성향은 본인의 작품에서 다양하고 따뜻한 색감과 즉흥적인 드로잉, 그로테스크와 모순된 성향을 통한 해학성으로 나타난다. 모든 표현방법에는 본인의 작품 속에 통합적으로 잠재되어 있으며 경계가 없

는 모호한 것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와 매혹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혼자만이 느끼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들이 공감할 하는데 그 가치를 둔다.

본 연구를 통해서 표현소재로서의 신체는 외면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의 세계와 무의식적인 내면세계까지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치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의 예술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작업방향과 예술적 정신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분노'라는 감정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다양한 욕망과 감정들을 내세우고 매체 연구의 폭과 예술적 미학이 갖추어진 이론에 의한 표현방법을 모색해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W. Kandinski,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역, 열화당, 2000, p.68
- Aniela Jaffe,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79, p.102
- 쉘링,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나남출판, 1999, p.34
- 김홍희,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재원, 1998, p.325
- Russo, 「The Female Grotesque」, Routledge, 1995, p.7-8
- 이안 심프슨, 「드로잉기법」, 최기득 역, 예경, 1994, p.53
- 모던 워커, 「The Power of Color」, 김은경 역, 교보문고, 1995, p.23
- 김진한, 「색채의 심리」, 시공사, 2002, p.56
- 라우어, 데이비드.A,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미진사, 2002, p.254

《학술논문》

-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한국학술정보, 2005, P.24
- 한림미술관·이대기호학연구소·유음, 「몸과 미술-새로운 미술사의 시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7
- Philip Thomson, 「그로테스크 The Grotesque」, 김영무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1~4
- 권영택, 「해결이 또 하나의 문제인 세상」:인문학연구제1호, 경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p.94

- 이은정, 「신체미술의 전경」, 미술과 담론 제 8호, 2000, p.87
- 임범재, 「인체비례론」, 홍익대학교 출판부, 1980, p.79

《인터넷》

- 위키 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f Expression of Feelings through the Body in
Contemporary Sculpture
-Centering around My Work-

Hong, Geun Young

Major in Public Art

Dept of Convergence Culture and Arts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e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body is a symbol of abundance and fecundity throughout history, object embodying completeness, source of sensual ostentation, and place where fear, anxiety, and moral confusion occur. To this the modern body may be a means to express suppressed feelings in relation to its surroundings.

The expression of suppressed feelings focuses attention on the socially excluded triggering instinctive emotions hidden in the unconscious. Violence from oppressed rage is an anti-social act, and is also suppressed. The act

of exposing such feelings at the exterior however, can resolve suppressed emotion, generating pleasure from a taboo being broken. This thesis describes the expression of suppressed rage innate in the unconscious through my works displayed at the 2011 my solo exhibition, analyzing the content and expression of the works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body.

This thesis, studying the process of my work production has three chapters: Chapter 1 accounts for study purpose, methods, and categories. Chapter 2 arranges the concept of the expression of suppressed feelings, and describes a change in body image dependant on changes of the times. The chapter also addre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grotesque' and 'kidult' my work relies on: ways of metamorphosing forms and expressing body images using diverse colors and techniques are analyzed and described. In Chapter 3 the content is summarized, and assignments requiring further study and direction are explained. I present directions for my work, to allow for profound insight into my work through diverse colors and techniques and the exploration of physicality.